

2021년 7-2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7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對 일본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21.7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중국 올 2분기중 성장률, 전년동기비 7.9%로 둔화

- 미국은 6월 경제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2개월(3~4월)로써 역대 최단기간을 기록
- 일본과 유로존은 5월 실물지표들이 부진 내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2021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0% → 3.8%로 하향한 반면에, EU 집행위는 유로존의 역대 성장률 전망치를 4.3% → 4.8%로 상향
- 중국은 6월에도 주요 내수 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7.9%로 현저한 둔화세를 시현
- 달러화는 7월 들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경기 회복 둔화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락세 등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폭 약세
- 유가는 OPEC+ 증산 합의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60달러대 중반까지 급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반등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5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감소한 영향에도,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둔화한 영향 등으로 인해 전월비 0.1% 증가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동반 감소하면서 감소세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전환, 7월 중순(7.12~7.23일) 금리 하락세 및 원/달러 연중 최고치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와 실물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
- 원/달러 환율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약세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2020.10월 이후 처음으로 1,150원을 돌파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전월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전년동월비 16.0%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 경공업은 3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에서 감소 전환하고, 도소매,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4.4%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3.6% 증가, 전월비 기준 1.3% 증가

□ 고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2% 증가

- 지난 6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에, 제조업에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를 보이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3% → 2.2%)

□ 수출입 : 6월 수출 +39.8%, 수입 +40.7%, 무역흑자 45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9.8%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45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들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개월 연속 40% 내외 수준의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6월 경제지표 부진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2개월

○ 6월중 생산 둔화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 역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지표들의 부진세가 지속.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美 경제의 경기침체는 2개월로써 역대 최단기간

- 산업생산은 IT(0.6%) 생산 둔화와 자동차·부품(-6.6%)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증가하면서 정부의 현금 지원책(1.3월) 소멸 영향에서 일시 벗어난 모습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생산 확대에도 신규 수주와 고용이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과 달리 하락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의 상승세와 미래 기대지수의 상승 전환으로 상당 폭 상승
-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에,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상승률이 4개월 만에 0%대로 둔화
- 美 경제는 2020.2월 정점에 도달하고, 2020.4월 저점에 이르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2개월로써 역대 최단기간(NBER)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2	-3.5	4.3 (-2.4)	6.4 (0.4)	-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2.0 (4.6)	0.9 (3.5)	1.4 (3.7)	2.7 (1.7)	0.0 (1.0)	0.7 (1.3)	0.4 (0.6)
내구재수주	3.5	-13.6	4.7	5.5	-	1.3	-0.8	2.3	-
소매판매	3.3	0.3	0.4	8.0	6.2	11.3	0.9	-1.7	0.6
소비자물가	1.8	1.2	0.6	0.9	2.0	0.6	0.8	0.6	0.9
실업률(%)	3.7	8.1	6.8	6.2	5.9	6.0	6.1	5.8	5.9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196.8	-212.8	-	-75.0	-69.1	-71.2	-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59.1	61.4	60.8	64.7	60.7	61.2	60.6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3.4	96.1	62.3	109.0	117.5	120.0	127.3
경기선행지수 ³⁾	111.6	106.1	109.0	110.6	114.1	111.6	113.0	114.3	115.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5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 BOJ 2021년도 성장률 3.8%로 하향

- 지난 5월 생산은 상당 폭의 감소를 보이고, 소비 역시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면서 실물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진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2020.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 일본은행(BOJ)은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유지를 평가하면서 2021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 → 3.8%로 하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5.3	2.8	-1.0				
광공업생산	-2.7	-10.6	9.0	5.7	2.8	-1.3	1.7	2.9	-6.5
민간기계수주	-0.9	-8.5	-0.3	12.9	-5.3	-8.5	3.7	0.6	7.8
소매판매	0.1	-3.5	8.2	0.1	0.4	3.1	1.2	-4.6	-0.3
소비자물가	0.5	0.0	0.0	-0.6	0.5	0.1	0.2	-0.4	0.3
실업률(%)	2.4	2.8	3.0	3.0	2.8	2.9	2.6	2.8	3.0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881	1,959	542	212	658	249	-189
경기선행지수 ¹⁾	93.9	89.0	90.0	96.6	100.0	99.2	102.4	103.8	102.6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6월 내수 지표 둔화세, 2분기 성장률 7.9%로 현저한 하락세

- 6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수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하락.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현저히 낮은 7.9%를 기록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을 인하(-0.5%p)를 시행(7.15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14.1	9.8	8.8	8.3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2.9	30.3	12.6	25.6	19.9	15.4	12.6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34.2	17.7	12.4	12.1
소비자물가	2.9	2.5	0.1	0.0	1.1	0.4	0.9	1.3	1.1
수출(달러화기준)	0.5	3.6	16.9	45.6	30.8	30.6	32.3	28.0	32.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5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EU 집행위 성장률 전망치 상향

- 지난 5월 역내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10월 이후 최고치. EU 집행위는 유로존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상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12.6	-0.6	-0.3				
산업생산	-1.3	-8.4	16.2	4.3	1.1	-1.3	0.5	0.6	-1.0
소매판매	2.4	-1.0	10.4	-1.3	-1.5	4.3	4.0	-3.9	4.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0	-0.3	1.1	0.9	1.3	1.6	2.0
무역수지(10억유로)	223.0	235.0	62.3	75.8	69.5	23.5	17.9	13.4	9.4
경기체감지수 ¹⁾	107.3	88.7	90.4	89.8	92.6	90.9	97.8	107.2	110.0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급락 후 반등

- 달러화는 7월 들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경기 회복 둔화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락세 등의 여파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으로 소폭 약세
- 유가는 OPEC+ 증산 합의(7.14일)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6월 이후 최저치인 60달러대 중반까지 급락하고,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지속과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반등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23일
엔/달러	104.66	104.31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10.55
달러/유로	1.1647	1.1927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771
미 국채 (10년만기)	0.87	0.84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8
WTI유	35.8	45.3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2.3
두바이유	36.9	46.6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2.2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5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감소한 영향에도,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둔화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월비 0.1% 증가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전월비 -6.6%)와 기계장비(-5.6%) 등에서 감소한 영향에도 반도체(5.3%)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7%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3%) 등에서 다시 감소 전환함에 따라 0.2%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실질GDP 성장률	2.2	-0.9*	-1.0* (2.2*)	-1.1* (1.1*)	1.9* (1.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4.5* (0.2*)	-6.6* (-1.3*)	1.2* (1.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0.7* (5.8*)	6.1* (-0.6*)	12.4* (6.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5* (-3.9*)	-2.9* (3.5*)	-1.8* (1.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0.9 (2.8)	-1.5 (1.6)	2.7 (1.7)	0.4 (2.0)	5.8* (0.9*)	8.7* (-1.2*)	7.3* (0.1*)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2 (6.0)	0.0 (2.9)	4.4 (3.4)	0.8 (4.2)	4.6 (-0.7)	12.6* (-1.6*)	15.6* (-0.7*)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4 (6.4)	-0.1 (3.1)	4.4 (3.4)	0.9 (4.7)	4.7 (-0.8)	13.2* (-1.6*)	16.0* (-1.0*)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1.7 (2.0)	-2.0 (0.9)	2.2 (0.7)	0.8 (1.1)	7.8 (1.3)	8.3* (0.2*)	4.4* (-0.2*)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6 (-1.1)	-1.2 (0.9)	6.4 (1.7)	8.2 (-0.9)	11.1 (2.5)	8.7* (2.1*)	3.1* (-1.8*)
설비투자지수	-5.7	6.0	7.7 (2.2)	2.8 (0.8)	11.9 (6.9)	7.1 (-2.2)	9.6 (0.1)	17.1* (3.8*)	11.0* (-3.5*)
건설기성액	-2.3	-4.1	-4.2 (-2.8)	-5.3 (2.5)	-7.2 (-3.6)	-8.3 (6.8)	-5.6 (0.4)	-3.2* (-2.2*)	-7.6* (-4.1*)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1.7	113.6	114.4*	114.3	115.1*	116.4*	116.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1	98.7	98.1	99.4	99.8*	99.7	100.2*	101.2*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0.0	122.5	124.7*	124.8	125.3*	126.3*	127.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5	100.5	100.5	101.9	102.9*	102.9	103.2*	103.7*	104.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1.0%)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의복 등 준내구재(-8.8%, 2020.3월 이후 최대폭 감소)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월비 1.8%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3.0%)와 운송장비(-4.5%)에 대한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월비 3.5%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8.5%)과 건축(-2.6%) 공사 실적이 2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면서 4.1%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수입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3% 상승(4개월 연속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이 감소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상승함에 따라 0.7% 상승(14개월 연속 상승)

□ 물가 : 6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6.4% 상승

- 6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1%)에서 비교적 큰 폭 하락한 영향에도 교통(0.8%)과 주택·수도·전기·연료(0.2%), 음식·숙박(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1% 하락(전년동월비 2.4%)
- 6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1.2%)에서 소폭 상승 전환되고, 서비스(0.2%)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공산품(0.6%)에서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4%로 하락(전년동월비 6.4%)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0.4	0.5	0.6 (0.6)	0.4 (0.1)	1.1 (1.2)	2.5 (0.5)	1.1 (0.5)	1.5 (0.1)	2.3 (0.2)	2.6 (0.1)	2.4 (-0.1)
근원물가	0.9	0.7	0.8 (0.2)	0.7 (0.0)	0.9 (0.6)	1.4 (0.6)	0.8 (0.1)	1.0 (0.1)	1.4 (0.3)	1.5 (0.3)	1.5 (0.1)
생산자물가	0.0	-0.5	-0.6 (1.0)	-0.2 (0.2)	2.3 (2.6)	6.3* (2.4*)	2.1 (0.8)	4.1 (1.1)	6.0 (1.0)	6.6 (0.5)	6.4* (0.4*)
근원물가	0.1	-0.1	-0.2 (0.8)	0.5 (0.5)	2.4 (2.0)	6.0* (2.6*)	2.1 (0.6)	3.8 (0.9)	5.6 (1.2)	6.2 (0.6)	6.2* (0.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전환

- 6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더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폭이 더 축소
(21.5월 +5.7조원 → 21.6월 +5.1조원, 대기업 -1.1조원, 중소기업 +6.1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의 요인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기조가 지속
 -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분기말 일시상환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축소
- 회사채도 투자수요 확대와 일부 대기업의 발행 재개 등으로 순발행 전환
(21.5월 -0.2조원 → 21.6월 +2.8조원)
- CP는 전월과 달리 소폭의 순발행 기조로 전환
(21.5월 -1.1조원 → 21.6월 +0.6조원)
- 주식발행은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21.5월 +3.2조원 → 21.6월 +2.4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6월말 잔액
	1~6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 은행 원화대출	27.8	2.1	77.7	1.5	45.8	11.4	5.7	5.1	1,022.1
(대 기 업)	0.8	-2.2	24.2	-3.4	1.3	2.0	-0.8	-1.1	173.1
(중소기업)	27.0	4.3	53.5	4.9	44.4	9.5	6.5	6.1	849.0
<개인사업자>	11.4	1.7	28.7	2.6	19.4	3.8	2.3	3.2	405.4
■ 회사채 순발행	9.4	2.4	10.7	4.4	13.6	3.2	-0.2	2.8	..
■ CP 순발행	2.6	-2.4	4.2	-2.6	7.5	2.3	-1.1	0.6	30.4
■ 주식발행	3.0	0.4	2.4	1.5	14.7	0.2	3.2	2.4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6월중 금융시장 동향).

- 6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대출도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전월과 달리 증가세로 전환
(21.5월 -1.6조원 → 21.6월 +6.3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고, 집단대출 취급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5월 +4.0조원 → 21.6월 +5.0조원)
- 기타대출도 주택거래 및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
(21.5월 -5.5조원 → 21.6월 +1.3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6월말 잔액
	1~9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은행 가계대출	21.3	5.4	40.6	8.2	41.6	16.2	-1.6	6.3	1,030.4
■주택담보대출	18.5	4.0	32.2	5.1	30.4	4.2	4.0	5.0	752.2
■기타대출	2.9	1.5	8.4	3.1	11.3	11.8	-5.5	1.3	277.3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6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7월 중순(7.12~7.23일) 금리 하락세, 원/달러 연중 최고치

- 국고채(3년) 금리는 7월 금통위(7.15일) 직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국내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와 실물경기 둔화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하락
(7.12일 1.38% → 7.23일 1.39%, 0.01%p 상승, 7.15일 1.49% 연중 최고치)
-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약세 등의 여파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2020.10월 이후 처음으로 1,150원을 돌파하는 등 연중 최고치
(7.12일 1,147.0원 → 7.23일 1,150.8원, 3.8원 상승, 7.21일 1,154.0원 기록)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5월	6월	7.23일
국고채(3년)	1.36	1.07	0.84	0.85	0.98	1.13	1.23	1.45	1.39
회사채(3년,AA-)	1.94	2.08	2.25	2.19	2.21	2.06	1.95	1.97	1.84
CD(91일)	1.53	1.10	0.79	0.63	0.66	0.75	0.66	0.68	0.70
CP(91일)	1.69	2.20	1.51	1.11	1.09	1.00	0.97	0.97	0.97
원/달러	1,156.4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10.9	1,126.1	1,150.8
원/100엔	1,063.5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12.3	1,019.2	1,043.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16.0%, 전월비 -1.0%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11.1%)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26.9%)와 자동차(32.1%), 기계장비(18.8%), 화학제품(18.4%) 등 다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6.0%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1.7%)와 중공업(17.5%)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공업(9.1%)은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5.3%), 기타운송장비(3.2%)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6.6%), 기계장비(-5.6%), 1차금속(-1.5%), 화학제품(-1.4%) 등 다수 업종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인 영향으로 인해 전체 기준 1.0%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8)는 금속가공과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3%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2%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2.4%로 전월보다 0.3%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더 확대(10.1% → 17.7%,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역시 감소세가 확대(-4.5% → -4.7%)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전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

□ 서비스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4.4%, 전월비 -0.2%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2.0%)에서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도소매(3.2%)와 운수·창고(1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3.0%)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준 4.4%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3%)와 금융·보험(-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교육(-0.6%)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숙박·음식점(2.5%) 등에서는 증가폭이 둔화한 영향으로 4개월 만에 하락(-0.2%)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6%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1.3%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06.4	112.9	109.8	118.8	114.4	111.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2	0.0	4.4	4.6	12.6	15.6	-0.7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06.7	112.9	109.1	119.0	115.0	11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4	-0.1	4.4	4.7	13.2	16.0	-1.0
섬 유	135.0	-5.9	-10.5	-8.9	-6.2	-4.5	0.0	25.5	28.6	-2.3
화 학	883.8	-1.3	-3.0	-4.1	-1.2	2.8	8.1	12.3	18.4	-1.4
철 강	454.3	-2.2	-6.3	-9.0	-1.5	-1.9	-1.0	5.9	14.4	-2.7
반도체	1,285.6	11.7	22.6	20.7	12.6	21.9	25.5	29.8	26.9	5.3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9.7	0.8	-3.2	-4.9	1.8	16.8	4.1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3.5	2.2	28.7	18.6	51.6	52.8	-7.4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8	7.2	9.8	17.0	19.9	32.4	40.1	5.2
기계, 장비	819.2	-5.9	3.7	6.7	3.7	9.4	7.1	17.5	18.8	-5.6
자동차	981.6	-0.5	-10.0	-1.0	-2.9	11.2	-0.6	20.1	32.1	-6.6
조 선	206.3	17.6	8.6	9.0	-1.3	-15.6	-17.4	-13.8	-16.7	-1.2
- 중 공 업	-	0.6	0.6	0.7	0.6	5.5	5.0	14.0	17.5	19.4
- 경 공 업	-	-0.6	-4.0	-1.5	-2.9	-0.3	3.3	9.0	9.1	11.6
- 제조업ICT	-	4.8	11.9	8.9	8.5	14.0	13.6	22.5	21.7	8.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05.9	110.5	105.9	111.5	109.5	109.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1.7	-2.0	2.2	7.8	8.3	4.4	-0.2
도소매	211.3	-0.4	-2.6	-1.6	-1.8	3.1	8.3	9.3	3.2	-1.3
운수및창고	90.3	0.0	-14.2	-16.1	-13.1	-2.4	14.0	15.1	10.3	-0.3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5.6	-24.6	-13.1	19.3	8.4	-2.0	2.5
정보통신	79.9	3.6	1.5	0.2	0.0	2.0	4.7	2.9	2.8	1.2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6.4	18.7	15.0	9.9	11.7	7.4	-1.0
부동산	31.8	0.5	5.5	6.2	0.5	-2.6	-0.3	8.7	5.4	1.5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8	0.3	2.1	5.3	6.9	3.0	-1.4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9.9	-11.7	-3.8	1.7	5.5	5.3	1.0
교 육	106.0	-0.4	-4.7	-4.3	-3.9	0.2	6.1	4.8	3.1	-0.6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3	-0.4	0.8	2.3	2.3	3.1	0.8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1	-33.3	-18.0	35.0	35.8	19.8	-4.7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5.0	-10.4	-1.8	16.1	8.0	-3.6	1.2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1.4	2.3	0.5	5.1	6.6	6.2	2.7
- ICT서비스업	-	3.5	4.9	4.8	3.4	4.3	4.9	4.1	3.6	1.3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6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2% 증가

- 지난 6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에, 제조업에서 전월과 달리 감소세를 보이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3% → 2.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개월 만에 소폭 감소 전환(0.4% → -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4개월 만에 증가(-0.2% → 1.0%)하고, SOC·기타서비스의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2.9% → 2.7%)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약간 확대(6.6% → 7.0%)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2.3% → -2.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0% → 7.6%)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6% → 7.9%)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0.3% → 8.7%)와 교육서비스(2.3% → 1.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7.7% → 6.1%)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 증가세도 둔화(4.6%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7%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산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6,365	26,923	27,214	27,550	27,637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1.8	1.2	2.5	2.3	2.2
농림·어업	4.1	3.6	2.4	-0.2	0.2	2.7	-1.8	-0.2	-0.2	1.0
제조업	-1.8	-1.2	-2.4	-0.6	0.1	-0.6	-0.3	0.2	0.4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2.3	1.7	3.1	2.9	2.7
건설업	-0.7	-0.2	2.2	1.7	7.0	1.4	4.7	7.3	6.6	7.0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7.0	-6.9	-2.4	-7.3	-3.5	-2.2	-2.3	-2.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0.7	3.9	5.5	4.4	5.8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2	-0.4	4.3	-1.0	3.3	4.5	4.6	3.9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3	4.4	3.7	4.0	3.9	3.7	3.8	3.7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6월 수출 39.8% 증가, 수입 40.7% 증가, 무역수지 흑자 45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9.8%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 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에서도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개월 연속 40% 내외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산품 수입이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중간재와 소비재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40%대 증가율로 확대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9.9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45.2% 상승하고, 도입물량도 5.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 기준 159.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447 (9.3)	537 (16.4)	512 (41.2)	508 (45.6)	548 (39.8)
수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2 (12.1)	1,490 (37.4)	422 (14.2)	496 (18.7)	508 (33.9)	478 (37.9)	504 (40.7)
무역수지	389	452	182	102	78	25	41	4	29	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동반 증가,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

○ 반도체 : 신규 CPU 출시와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D램 등 메모리 주문 확대가 본격화되고, 파운드리 물량 증가와 모바일 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 흐름 등에 힘입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인한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소비 심리 회복, 친환경차·SUV 수출 단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반도체 수급 리스크와 인도의 코로나 봉쇄 장기화, 일부 공장들의 생산량 조절 등의 영향에도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 데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해상운임 상승으로 컨테이너선 중심의 글로벌 발주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 선종인 탱커 및 가스선도 지난 6월중에 다수 인도된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2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에도 비대면 IT 제품 수요에 따른 LCD 가격 상승과 글로벌 OLED 스마트폰 수요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에 따른 완제품 수출 증가와 인도·중동 등 新시장 중심의 5G 스마트폰 판매 호조, 중국 스마트폰 생산 증가에 부품 수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국내 공급 부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 및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과 건설·자동차 등 전반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글로벌 섬유 수요 회복과 의류 등의 팬트업 효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지의 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 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된 데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북반구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백신 보급에 따른 항공 노선 증편 등으로 항공유 수요가 이어지면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
- **석유화학** : 글로벌 공급 차질의 정상화와 대규모 설비 증설 등의 영향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출단가가 이어지고,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일반기계** : 자동차, 반도체 등 전후방 산업들의 양호한 수출 증가세로 인한 기계설비 수출 증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증가, 머시닝 센터 등 최근의 급격한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해외 공장 가동의 정상화까지 국내 출하량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EU 등지의 경기 회복세, 우리 기업들의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에 따른 SSD 판매 단가의 동반 하락에도,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추세를 비롯한 하반기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 재개 등으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동차	5.3	-13.1	1.1	31.5	74.8	46.9	15.2	73.4	93.7	62.5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2	0.1	12.5	99.9	182.2	108.2
선박류	-5.2	-2.0	32.1	28.3	11.9	3.6	62.8	14.4	-15.0	41.2
일반기계	-1.9	-8.9	-5.1	-1.4	21.3	-5.7	6.1	17.1	25.7	21.4
철 강	-8.6	-14.5	-6.5	7.6	50.7	3.4	12.9	38.9	62.9	51.7
석유화학	-14.8	-16.4	-7.7	26.6	81.1	23.7	48.0	82.8	94.4	68.4
석유제품	-12.2	-40.6	-44.7	-16.5	110.7	-12.2	19.2	99.7	168.5	80.1
섬 유	-8.0	-13.3	-6.6	-8.3	46.2	-24.0	9.0	46.5	57.1	36.8
가 전	-3.8	0.7	19.2	15.8	66.5	10.1	18.0	69.3	89.4	47.6
무선통신기기	-17.6	-6.4	11.9	21.6	38.6	10.3	5.8	79.7	41.4	3.5
컴퓨터	-20.6	57.2	8.5	2.8	8.9	-4.1	6.9	1.6	7.5	16.6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13.1	8.6	30.2	24.5	34.4
디스플레이	-17.0	-12.2	17.8	16.3	36.0	19.1	-1.1	43.5	38.6	28.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對 일본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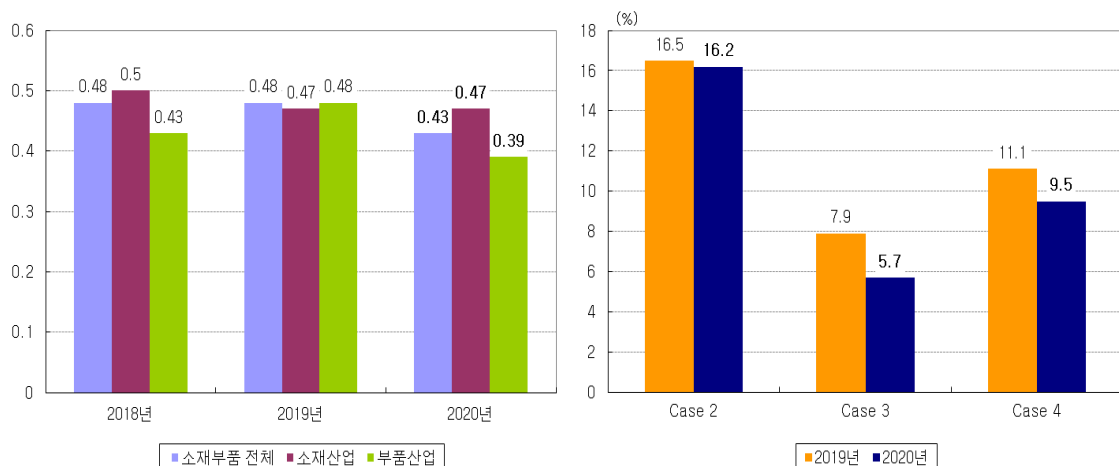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2021.7.2일)

-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양국간 전체 및 소재부품산업 교역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 그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

□ 한국의 對일본 산업별 소재부품 교역

- **(총괄)** 소재부품 교역에서 전자부품과 수송기계부품,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對일본 수출이 대폭 축소되고, 1차금속제품과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부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5개 산업은 2019~2020년중 2년 연속 對일본 수입액이 감소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지난 2020년까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된 산업은 정밀기기부품 등 1개 산업이었던 반면에, 고무및플라스틱제품과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3개 산업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한국의 對일본 소재부품산업 무역수지비)**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산업 전체의 수지비(수출액/수입액)가 악화된 가운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 모두 무역수지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

< 한국의 對일본 소재부품 무역수지비 > < 규제품목 對일본 수입의존도 변화 >



자료 :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년 6월 8일).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수입 변화

-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이후 품목별 한국의 對일본 수입패턴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과 일본이 지정한 수출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변화)** 對일본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위 10개 품목은 대부분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본 수출규제 품목중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위 10개 품목은 수입의존도가 85% 이상으로 분석
- **(對일본 수입의존도별 품목 비중 변화)** 2018~20년중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對일본 수입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對일본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이 對일본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對일본 수입액 비중이 감소하고, 對일본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중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액 비중도 감소
- **(품목별 수입 변화 분석)** 국내 전체 품목의 전체 수입과 대일 수입의 기간별 변화, 규제품목에 대한 기간별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전후로 해당 수입액과 품목 수, 비중 등을 산출
 - 對세계 수입이 증가하면서 對일본 수입이 감소(Case 3)하거나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감소(Case 2)한 품목 그룹, 對세계 수입이 감소하면서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감소(Case 6)한 경우에 일본 수출규제의 효과를 가정
 - **(결과)**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Case 2·3·6)에 규제품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對일본 수입의존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를 평가해 보면, 국산 소재부품 개발 노력 강화,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나, 여전히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對일본 의존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핵심 주요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과의 연계성도 강화
- 소재부품산업의 기초원천기술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핵심 주요 소재부품 국내 조달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해외 기업 유치 추진
- 소재부품산업의 최종 수요처가 되는 국내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유지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한·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교역질서 유지로 양국 모두 호혜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7.26)	(7.27)	(7.28)	(7.29)	(7.30)
	 7월 소비자신뢰지수  6월 내구재수주(잠)  연준 FOMC(7.28일)  21.2분기 실질GDP (속 보 치)	 5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7월 소비자동향조사	 6월 무역수지(수)  7월 경제제감지수  21.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산업생산(잠)  6월 소매판매(잠)  6월 실 업 륜  7월 소비자물가(예)  6월 실 업 륜  21.2분기 실질GDP (예 비 치)  6월 개인소비  7월 가업경기심사지수  6월 산업활동동향
(8.2)	(8.3)	(8.4)	(8.5)	(8.6)
 7월 ISM 제조업지수  7월 수출입 통계	 7월 소비자물가	 6월 소매판매  7월 ISM 비제조업지수	 6월 무역수지	 6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7월 고용보고서
(8.9)	(8.10)	(8.11)	(8.12)	(8.13)
 7월 소비자물가	 7월 소비자물가  7월 고용동향	 6월 산업생산		 6월 수출입통계
(8.16)	(8.17)	(8.18)	(8.19)	(8.20)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7월 고정투자  6월 산업생산(수)  6월 소매판매(수)  21.2분기 실질GDP (잠 정 치)	 21.2분기 실질GDP (수 정 치)  7월 산업생산  7월 소매판매	 7월 무역수지(잠)  6월 기계수주  7월 소비자물가(수)	 7월 경기선행지수	 7월 소비자물가  7월 생산자물가